

미혼남녀의 피임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황신우¹ · 정재원²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¹,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 부교수²

Contraception Behaviors in Unmarried Men and Women: A Descriptive Qualitative Approach

Hwang, Shin Woo¹ · Chung, Chae Weon²

¹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²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ontraception behaviors in unmarried men and women. **Methods:** A descriptive qualitative study design was use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fifteen participants were conducted. Content analysis was utilized to determine the main outcomes. **Results:** For men, three themes were consistently seen as contraception behaviors: 'men desired sexual intercourse greatly', 'men would not use a contraceptive device, even though they knew it was necessary', and 'men gradually considered contraceptive use to live their lives without interruption'. For women, the three themes were as follow: 'women had sex half willingly while half did not have sexual inter course for the first time', 'women did not use contraceptive devices because of ignorance of contraceptive methods', and 'women did not carefully consider contraceptive use'. **Conclusion:** To prevent unmarried men and women from having unplanned pregnancies, tailored sex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out Korea. All things considered, the effect of multimedia sex educ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maximize the use of contraceptive devices.

Key Words: Qualitative research, Single person, Men, Women, Contraception behavior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미혼남녀의 혼전 성경험 비율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선희의 연구에서 미혼남성의 38.2%, 미혼여성의 10.9%가 혼전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임순 등의 연구에서는 미혼여성의 34%가 성경험이 있었고, 2011년 황신우의 연구에서는 미혼남성의 85.4%, 미혼여성의 56.1%가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미혼남녀의 성관계에서는 안전한 성행위(safer sex)가 중요하다. 그것은 성병

이나 혼전임신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안전한 성행위의 일환으로 피임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전국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손애리와 천성수(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 성경험 시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는 비율이 55.2%로 조사되어 그에 따른 문제점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혼전임신은 인공임신중절이나 미혼모를 선택하게 되고, 설령 아이로 인해 결혼했는지라도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는데 갈등요인이 많음을 기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장수정, 2005). 따라서 피임 없는 성관계의 결과로 나타나는 임신에 대한 고려는 행위자들과 건강관리자들이 초점을 두어야 할 문제이다.

주요어: 질적 연구, 미혼, 남성, 여성, 피임행위

Corresponding author: Hwang, Shin Woo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03 Daehak-ro, Jongno-gu, Seoul 110-799, Korea.
Tel: +82-2-740-8462, Fax: +82-2-740-8837, E-mail: seepochung2000@yahoo.co.kr

투고일 2012년 9월 19일 / 심사완료일 2012년 10월 3일 / 게재확정일 2012년 10월 5일

연구방법

피임행위를 주제로 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계획적 행위이론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피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위통제로 피임의도와 피임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그림을 제공하지만, 이 이론이 피임행위를 복합적으로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피임행위가 다른 건강행위보다도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므로 특정 대상자나 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만 행위를 뒷받침하였다. 황신우(2011)의 연구에서 파트너의 영향을 받거나, 음주와 같은 생활·환경적인 요소들에 의해 실제 피임실천여부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적 연구는 대상자의 행위를 파악하고 새로운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Creswell, 2007). 특히, 피임행위는 존재하는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세계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성문화와 더불어 미혼남녀의 피임행위에 대한 고찰이 절실하다. 따라서 그들의 피임행위를 통제하는 내면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피임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 조사방법은 양적 연구 방법이며(이혜경, 2010; 최정현, 김경은, 신미아, 2010; 황신우, 2011), 피임경험을 탐색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개인의 심도 있는 피임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방법은 본 연구문제를 탐구하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역점을 둔 것은 미혼남녀 간 피임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송주은, 채현주, 2010; 최명숙, 2004; 허태균, 한민, 김연석, 2004; 황신우, 2011; Boer & Mashamba, 2007; Thorburne, 2007; Wang et al., 2007), 특히, 피임에 대한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면 향후 남녀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해 발견되는 요인들로 간극을 채우고, 양적 연구를 통해 파악되지 않은 개인의 목소리를 도출한다면 피임행위를 주관하는 요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찰을 통해 피임실천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서술적 질적 연구의 목적은 성관계의 상황에서 미혼남녀의 피임경험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피임실천의 과정을 살펴보고, 피임행위를 통제하고 있는 생각을 도출하고자 남녀 각각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혼남녀가 성관계 시 경험하는 피임행위에 대한 탐색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의미 체계 그대로 기술하는 서술적 질적 연구방법(qualitative descriptive research)을 선택하였다.

서술적 질적 연구는 연구대상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가지는 자료로 보며 숨겨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미리 이론적 견해나 철학을 가지지 않고 연구참여자로부터 얻어낸 직접적인 자료로부터 피임행위에 깔려있는 인식이나 태도를 도출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2. 연구대상

연구참여자는 혼전 성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미혼남녀 15명(미혼여성 7명, 미혼남성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를 만 20세 이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성적 호기심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중·고등학교시기를 지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인으로서 성을 표현하거나 경험하는 기회가 많음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손애리, 천성수, 2005; 이임순, 2006; 황신우, 2011).

본 연구의 주제가 개인적이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의도적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자 주변의 미혼성인남녀들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공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의 특성상 자신을 잘 표현하고,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구자가 속한 간호대학의 '연구대상자보호 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참여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를 면담하였다(승인번호: 2010-53).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론' 수업과 다수의 특강을 통해 질적 연구에 필요한 연구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이루어졌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연구자 주변 미혼남녀에게 연구

표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연령 (세)	직업	첫 성관계 시기 및 상대	첫 성관계 시 피임 유무	현재 피임 유무	
여성	1	22	대학생	고등학교, 남자친구	아니오	아니오
	2	28	대학원생	대학교, 남자친구	예	상황에 따라서
	3	22	대학생	중학교, 남자친구	아니오	아니오
	4	25	대학생	대학교, 남자친구	예	아니오
	5	24	대학생	대학교, 남자친구	아니오	아니오
	6	31	직장인	대학교, 남자친구	아니오	상황에 따라서
	7	27	대학생	대학교, 남자친구	아니오	상황에 따라서
남성	1	27	대학생	군 복무 중, 업소여성	예	예
	2	25	대학생	대학교, 여자친구	아니오	예
	3	33	직장인	대학교, 여자친구	아니오	예
	4	27	직장인	중학교, 여자친구	아니오	아니오
	5	25	대학생	대학교, 여자친구	예	예
	6	34	고시공부중	대학교, 여자친구	예	예
	7	27	대학원생	대학교, 여자친구	예	예

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공감하는 참여자와 면담 장소 및 시간을 약속하였다. 실제 면담이 이루어졌을 때, 참여자의 익명성과 면담자료의 기밀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되며 면담에 요구되는 시간은 평균 1~2시간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면 동의서를 득한 후 연구자와 참여자가 각각 1장씩 나누어 가졌다.

면담을 위해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피임행위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질문과 후속질문이 사용되었다.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면담 환경을 만든 후 피임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종료 후 면담 중 궁금해 했던 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대상자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답례로 전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면담자료는 필사본으로 정리하였으며 면담내용은 Downe-Wamboldt (1992)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참여자의 진술내용을 수차례 읽으며 메모와 성찰의 과정을 통해 전체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연구 질문에 근거하여 의미 있는 문장을 확인한 후 범주로 분석하여 분류하였다.
- 이러한 범주들은 다시 코딩작업을 거쳐 하위범주로 조직하였다.
- 위 과정의 반복을 통해 모든 참여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형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정

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2명과 분석결과를 논의한 후 피드백을 받아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연구 결과는 여성과 남성 각각 제시하였다.

5. 연구 질문

본 연구를 위한 면담 시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중심 질문

첫 성관계부터 지금까지 피임활용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2) 하위 질문

- 피임을 하였다면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 피임을 못 하였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 피임을 하였다면 혹은 못 하였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었을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를 통해 미혼남녀가 피임을 실천하게 되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피임행위를 통제하고 있는 이들의 생각을 도출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경험을 함께 제시해야 하므로 결과 진술의 간결성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제모

음 이하 하위범주의 내용은 구분하지 않고 종합하여 서술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1. 남성참여자의 연구결과

남성의 경우 첫 성경험에서 피임을 실천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성경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사회의 분위기가 반드시 일정 나이 전에 성경험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벌결에 성관계가 이루어진다. 또한, 음란물을 통해 피임이 빠진 과장된 성행위를 학습하게 되고, 더욱이 공교육을 통해 피임방법을 습득하기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주의 강의를 듣거나 임신 가능성에 대한 걱정 등으로 피임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대처를 하고자 하는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피임정보를 구하고 실천하게 된다.

1) 제1주제: 바라던 첫 성경험

이 주제는 남성 참여자들이 첫 성경험을 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들이게 있어 성경험은 반드시 치러야 할 통과 의례와도 같은 것이었다. 성경험 전 성에 대한 정보 노출은 많으나 피임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였다. 또한, 대중매체나 타인의 경험을 통해 피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첫 성경험 때 피임을 실천하지는 못했다.

(1) 남자로서 인정받기 위해 빨리 치러야 할 통과 의례

남성 참여자들은 첫 성경험을 되도록 빨리 치러야 할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첫 성경험을 ‘통과의례, 훈장, 전리품, 별을 달았다’로 말하는 반면 성경험이 없는 사

람은 ‘불쌍하다, 찌질이, 못난이, 바보’로 표현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경험이 없다면 수치심을 가졌고 성경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상대적으로 성경험이 많은 친구는 타인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에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에 노출되며, 경험 그 자체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피임에 대한 생각까지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만 안 해 봤다 그러면 웬지 바보 취급을 받고 못난이 취급을 받고, 되게 어리숙한 친구 막 이런 걸로 취급을 받을까 거짓말을 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그런 경험에 대해서는 훈장처럼 느끼는 건 사실이고, 이렇게 반대로 못해 본 사람이 되게 평가 절하하는 그런 것도 있고. (참여자 1)

(2) 성적환상과 실제경험과의 괴리감

이들 참여자들은 첫 성경험 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으로 받은 성교육이 아닌 매체나 제3자를 통한 것이었다. 이런 간접경험을 통해 피임 없는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들은 대중 속에서 성을 알아가면서 잘못된 성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접촉은 건전한 성에 대한 이해보다는 성의 선정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로 인해 실제와 거리감이 있는 성적환상을 가지기도 하였고 이는 피임실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그런 야동이나 이런 것을 봐도 콘돔 쓰는 게 거의 없거든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실수를 했거나, 원래 안하

표 2. 남녀의 피임행위 변화 과정

남 성	여 성
제1주제: 바라던 첫 성경험 1) 남자로서 인정받기 위해 빨리 치러야 할 통과 의례 2) 성적환상과 실제 경험과의 괴리감 3) 부지불식간에 노출되는 매체 4) 타인의 경험을 통한 성에 대한 이미지화	제1주제: 자의반 타의반에 의한 첫 성경험 1) 분위기에 이끌려 경험한 첫 성관계 2) 성관계 후 정보 찾기 및 합리화 과정
제2주제: 어렵듯이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피임 1) 막연한 피임 2)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피임	제2주제: 무지에서 비롯된 피임 없는 성관계 1) 나와는 상관없는 “임신”
제3주제: 첫 성경험에서 누락된 피임에 대한 고려 1) 내 인생의 방해물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피임 2) 여자 친구의 부탁을 수용하는 수준의 피임 3) 인식의 변화로 인한 피임	제3주제: 여전히 생각으로만 머무르는 피임 1) 남성이 주도하는 피임에 대한 암묵적 동의 2) 인생을 책임져줄 남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 3) 부분별하게 수용한 매체

는 건데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거나 그런 건데 그냥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참여자 5)

(3) 부지불식간에 노출되는 매체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영상물의 노출이 쉬워졌는데 이는 참여자들의 성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전 성관계를 쉽게 여기는 경향이 뚜렷하였고, 피임하지 않아 발생한 임신의 결과로 결혼을 고려하기 보다는 쉽게 낙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나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 해 보세요, 결혼하면 아닙니다, 결혼하면 뭐 집을 나가고 싶습니다. 결혼하면 집을 왜 나가서 자는 게 좋은지 알게 됩니다.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1박 2일이나 무한도전에서 항상 그래요. 주말에 보는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면 지옥이다. 남자는 결혼하게 되면 끝이다. 인생 끝이다.(참여자 1)

인터넷 치기만 해도 오만 음란사이트가 다 나오는데... 요즘 애들 그거를 저는 반대는 안하는데 너무 사람관계, 남녀의 관계가 쉽게 생각되고 정체성이 자리 잡기 이전에 그런 것부터 알아버리면 사람대하는 것에 있어 쉽다라는 생각을...(참여자 6)

(4) 타인의 경험을 통한 성에 대한 이미지화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또래집단으로부터 성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생생한 성 경험담을 통해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이를 동경하기도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나누는 성 관련 대화는 수위가 높았으며 특히, 동성과의 대화는 거리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경험에만 초점을 둘 뿐 피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가장 저에게 영향을 줬던 경험 그 간접경험은, 일단 또래, 친구들 그리고 학교, 물론 고등학교가 아닌 대학교 선배가 될 것 같네요. 거기에서 많이 정보를 얻고, 그거에 따라서 제 가치관도 많이 변했고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참여자 1)

2) 제2주제: 어렵듯이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피임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을 통해 피임에 대해서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로 인해 피임에 대해서 막연하였고, 두 번째는 올바른 피임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였다.

(1) 막연한 피임

남성 참여자의 절반이 준비되지 않은 첫 성경험으로 인해 피임을 실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피임을 해야 하는 이유보다는 성관계를 빨리 치러야 하는 이유가 더 컸다. 또한, 술에 취하여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임하지 않아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막연한 생각이 피임하지 않게 하기도 하였다.

그 때는 그게 정황이 없었고 너무 막 준비된 것도 없었고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돼 가지고 그 보통 만약에 뭐 하게 될 줄 알면 준비를 했을 텐데, 아예 뭐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 어떻게 하게 돼 가지고 (피임을) 안 했었어요.(참여자 2)

그땐 걱정보다 그게 (성관계가) 처음이니깐 그쪽으로 정신이 팔려서 그런 생각은 (피임) 아예 못하죠. 아예 안 했어요.(참여자 4)

반면에, 남성 참여자1의 경우에는 첫 성경험 때 피임을 한 경우인데 그 이유는 상대가 업소여성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상대가 피임에 대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피임하지 않은 성관계가 가능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는 그 때 상황에서는 피임에 대한 개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알고는 있었으나, 그런 피임도구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알고 있었죠 예. 간접경험을 통해서... '아 피임을 해야 되겠다. 그 분은 여성 업소 분들이고, 그래서 나도, 뭐 위험을 뭐 질병이라던가 그런 걸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하는구나' 뭐 그런 거에 대해. 그리고 이제 처음이니까 어리숙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참여자 1)

(2)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피임

남성 참여자로부터 얻은 우리나라 성교육에 대한 공통적인 목소리는 기억에 남는 성교육이 없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특히, 어떻게 피임하는지 몰라서 실천하지 못했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학교 때 성교육은 생물 수업이었어요. 정자와 난자 뭐 이런 거고, 이렇게 수정을 해야 아기가 생긴다. 뭐 이게 거의 끝이었어요. 저희 댐. 그래서 그 수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얘기가 생기거나 혹은 이것을 원치 않을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참여자 3)

아니요. 거기에 있어요. 모텔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끼는지도 모르고...(참여자 6)

이들은 상대 여성의 임신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피임법을 스스로 공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인터넷을 통하여 그릇된 지식을 습득할 가능성이 높음을 배제할 수 없었다.

항상 제가 잘 까먹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관심을 덜 가져, 덜 가진다는 증거겠죠. 항상 여자 친구가 있고, 여자 친구랑 관계를 시작하면 항상 인터넷을 찾아 봐요.(참여자 1)

3) 제3주제: 첫 성경험에서 누락된 피임에 대한 고려

남성 참여자들은 빨리 치러야 하는 첫 성경험에 초점을 두었을 뿐 피임에 대한 생각은 막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성관계가 지속되면서 피임을 실천하지 않아 발생할 문제들을 고려하게 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피임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주제에서는 남성 참여자의 피임실천 이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앞날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로서 피임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내 인생의 방해물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피임

남성 참여자들은 상대 여성이 임신을 한다면 자신의 인생이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이 피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따라서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상대 여성의 임신을 예방하고자 피임실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친구가 임신을 해 버리면 아기를 가져 버리면, 그러면 그거에서 오는 더 힘든 막 결정이라던가. 저도 힘들고 그 친구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어지고. 그런 거에서 그런 모든 상황들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피임을 했었고.(참여자 1)

결혼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된다면 여자 친구에게 매우 큰 피해가 있을뿐더러 저한테도 당연

히 피해가 있을 것..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줌... 나를 위해서 피임을 한다는 건 약간 이기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참여자 5)

또한, 이들은 상대 여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피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업소여성이나 원나잇으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에서는 피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이트 같은 데서 만난 사람, 아무래도 약간 좀 꺼려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게 콘돔을 안 끼면 성병 같은 것도 전염될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임신을 시켰다 그러면은. 진짜 뭐 어떻게 되게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참여자 2)

만약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된다면 쉽게 낙태를 선택한다고 대답하였다. 여성이 낙태수술로 인해 겪어야 할 신체적·심리적 어려움 보다는 상대방의 임신으로 인해 겪게 될 자신의 어려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만에 하나 원치 않는 임신이 됐을 때는, 정말 최후의 순간에는 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물론, 서로의 또 의사를 얘기를 해 봐야겠지만, 이제 단순히 그것 때문에 준비 안 하고 결혼이라는 것을 택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참여자 3)

(2) 여자 친구의 부탁을 수용하는 수준의 피임

참여자들의 피임행위 여부는 상대방의 피임지식 유무에 따라 결정되었다. 즉, 상대 여성이 스스로 피임하고자 주장할 때는 피임을 실천하게 되었다.

여자가 원할 때요. 안 원하면 기본은 그렇게 해요. 밖에 다 하는데 여자가 특별히 원하지 않으면, 저도 그렇고 친구들 얘기 하는 거도 남자는 그걸 끼는 거를 다 싫어해요.(참여자 4)

그때 당시 여자 친구도 피임에 대해서 자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효능감’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 여자 친구한테도 그거에 대해선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참여자 5)

(3) 인식의 변화로 인한 피임

남성 참여자는 여성주의 수업이나 전공수업을 통해 피임실천에 대한 신념을 고착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참여자 5의 경우 적극적으로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그는 여성주의 수업으로 인해 성관계 상황에서 여성도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이는 피임을 실천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제가 또 페미니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깐 성을 가볍게 또는 남자 위주의 해석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참여자 5)
글쎄요. 그게 저가 전공(사회복지학)을 이걸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피임에 대해서 어느 순간 신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전공 때문인지.(참여자 6)

2. 여성참여자의 연구결과

여성의 경우 첫 성경험에서 피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피임법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이들은 성경험을 하고 난 후 그제야 터부시되어왔던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활발히 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여성들은 다른 사람도 혼전 성경험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자신의 혼전 성관계를 합리화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성지식 습득보다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 정보를 얻고 있었다. 이들은 피임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실제 성관계의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에 대한 불안으로 끊임없이 걱정하지만 막상 피임하기를 주장하지 못하거나 피임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1) 제1주제: 자의 반 타의 반에 의한 첫 성경험

여성참여자의 첫 성경험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남성이 주도하는 성에 대한 수용이었다. 이들은 대학교 입학이라는 전환점을 계기로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 중요한 피임정보는 너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인터넷이나 술자리를 통해 얻은 지식을 조합하여 나름의 결론을 내리지만 그 또한, 올바른 성지식이라고 볼 수 없었다.

① 분위기에 이끌려 경험한 첫 성관계

여성 참여자는 섹스나 피임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없이 첫 성경험을 하게 되었다. 남자 친구를 만나면서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막연하게 성관계를 해야 할 때가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즉,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계속되는 성관계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여행을 가거나 독립된 공간에서 둘만 있게 됨으로써 성관계를 예상하기도 하지만 피임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거부나 결렬로 인한 결과가 헤어짐일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였으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자친구를 위해서 성관계를 한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그냥 촉발제라기 보다는 계속 싫은 책을 하다가 그냥 계속 애무를 하다가 그냥 허락을 했죠. 그냥 그냥 가만히 놔두죠. 어느 순간 그냥 이젠 때가 됐다...(참여자 3)

② 성관계 후 정보 찾기 및 합리화 과정

여성 참여자들은 대학교 입학의 기점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성경험을 하게 되고, 경험 이후에 비로소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 성경험 후 여성들은 알지 못할 죄책감에 빠지고 민하나 동료들과 성고민을 나누면서 혼전 성관계를 합리화하기도 하였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에 얘기 안 했을 때에는 혼자 죄 짓는 기분 들고 그랬는데 친구들과 얘기하다, 아 이 친구도 이렇구나 이 친구도 나랑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많이 편해지는 경향도 있고 서로 조심하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참여자 1)

음 그전까지는 되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경험을 하고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그랬다는 얘기를 서로 공유를 하다 보니깐 이게 많구나.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좀 개방적인 좀 개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깐 아무렇지도 않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참여자 4)

2) 제2주제: 무지에서 비롯된 피임 없는 성관계

여성 참여자는 끊임없이 임신을 걱정하지만 적극적으로 피임을 실천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

복됨에도 불구하고 상대 남성에게 피임하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였다. 여성 본인도 ‘설마 임신이 될까’란 생각으로 피임하지 않거나 분위기에 이끌려 스스로 피임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에 대한 불안 역시 여성 혼자만의 몫이었다. 참여자 2, 6, 7의 경우 다소 적극적으로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그 이유는 상대 남성이 먼저 피임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1) 나와는 상관없는 “임신”

여성 참여자들은 임신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언제든지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였다. 질외사정이 적절한 피임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여자들이 질외사정을 통해 피임을 실천하고 있었다.

어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질외사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임신이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자세히 몰랐을 텐데 그랬던 것 같아요. 잘..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참여자 3)

(피임)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안전한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 콘돔의 유무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관계에 피임이 필수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없었죠.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임신이 되면 세상에 불임이 없게’ 그런 생각을 바보 같은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7)

참여자 5의 경우 임신증상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않은 채 단지 임신선의 유무로 임신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참여자 1, 6의 경우 피임의 목적이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하는 시기에 성관계를 갖거나 생리 날짜를 늦추기 위해서 피임한다고 대답하였다.

배에 원래 그 임신선 있다고 임신하면 임신선이 진해 진다고 해 가지고요. 질외사정하면은 당연히 안 되는,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고 나서 걱정 이런 거 없고요.(참여자 5)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이 휴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친구들이 그래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날 터지면 안 되니깐, 생리를 하면 안 되니깐 그런 식으로 쓰지 그렇게 피임을 위해서는 쓰

지는 않아요.(참여자 1)

3) 제3주제: 여전히 생각으로만 머무르는 피임

본 연구의 여성 참여자들은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며 자기 주도적이었다. 그러나 피임에 있어서는 여전히 수동적이었다. 즉, 성관계 시 피임에 대해서 남성과 대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몰래 피임약을 먹는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임을 실천하고 있었다. 설령 피임하기를 원할지라도 상대 남성에게 강하게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였다.

(1) 남성이 주도하는 피임에 대한 암묵적 동의

여성 참여자들은 성관계 전에 피임에 대한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성관계 후 비로소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 남자친구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착한여자되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남성에게 끊임없이 잘 보이고 싶어 하며 같은 맥락으로 피임을 원하지 않는 남성의 요구를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 친구랑도 쓰고 싶은데 그 친구가 싫어해요. 그 콘돔은 지도 노력하는 척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하기 싫다고. 그럼 그래 ‘알았어’ 이라고 말아요.(참여자 1)

가끔씩 하다가 자기가 안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느낌이 그럴 때는 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때 안 돼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왜 그게 쉽지 않잖아요.(참여자 6)

“만약에 아! 절대 싫어! 그러면 절대 못하는데, 저도 암묵적으로 ‘어 그래’ 하니깐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빨리 하고 싶어서” (참여자 3)

(2) 인생을 책임져줄 남성에게 대한 무한한 신뢰

여성 참여자는 섹스와 결혼을 접목시키려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따라서 임신의 결과가 결혼으로 귀결된다면 혼전임신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즉,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하기 보다는 임신결과에 대해서 남성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그러니깐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판단이 낳을 것이냐 낙태를 할 것이냐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참여자 3)

지금은 좀 같이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언젠가 이 사람

과 결혼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설령 임신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참여자 2)

(3) 무분별하게 수용한 매체

여성 참여자의 경우 대중매체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흡수하였다. 특히, 드라마나 블로그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동경하고 비현실적인 모습을 모방하며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들은 남의 경험을 통해 왜곡된 성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얼마 전에 싸이를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싸이 들어가 봐라 얘기가 있다. 그런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가 걸어 다녀요 벌써. 그러면 그때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남자는 도망갔대요. 도망갔는데 지 혼자 얘기 넣고 키운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또 개는 되게 잘 지내요. 그러니까 혼자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기에는 얘기도 너무 예쁘고 그렇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괜찮다 저거도 괜찮긴 하다.(참여자 1)

남의 글과 남의 생각들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봤을 때 약간 진보적이라고 하나 그런 글을 봤을 때 나에게 내가 별로 그게 뭐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뭐 이렇다가 보다는 '아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점점 혼전순결 뭐 이런 거 개념이 점점 상실이 됐던.(참여자 2)

드라마 같은 데서도 '그들이 사는 세상' 에서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아!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막 사람들이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별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뭐 그렇게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로.(참여자 3)

논 의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된 미혼남녀의 피임경험을 통해 이들의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성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피임실천에 관한 남녀의 공통점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중매체의 영향이 성과 피임에 대한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매체·다채널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미디어에서의 성은 더욱 민감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백미숙, 강명구, 2007). 즉, 성의 무분별한 노출로 인해 부정적인 측면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통속적인 드라마에서 혼전 성관계를 미화하거나 흥미 위주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혼전 임신을 가볍게 다루고 있기에 특히, 성 활동이 활발한 젊은 미혼남녀들이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Bleakley et al., 2011). 여성 참여자 3의 경우 프리섹스와 관련된 일반서적을 통하여 여러 파트너와의 혼전 성경험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피임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남성 참여자 1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상대 여성이 혼전 임신한 경우 쉽게 낙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로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는 피임실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예컨대 미혼모인 친구의 삶이 마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유사한 삶을 모방하며 무비판적으로 이를 수용하였다. 실제로 여성 참여자 1의 경우 미혼모인 동료의 삶을 통해 자신도 혼전에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갑작스런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간접경험의 기회는 확대되어 가지만 실질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 확립이 과제로 남아있다. 매체가 끼치는 영향이 실로 큰 것을 감안한다면 매체의 긍정적인 역할을 활용한 피임교육이 필요하겠다.

대학 강좌 중 여성주의 수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여성주의를 '겉절이 학문'으로 표현하지만 이것이 끼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보였다. 남성의 경우 페미니즘을 긍정적으로 접하게 됨으로써 여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피임을 실천하려 노력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성에 대한 해방감으로 혼전 성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혼남녀의 피임실천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 소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성과 피임에 대한 인식은 바뀌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수준에 상응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성교육이 현재 미혼남녀의 피임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피임실천에 관한 남녀의 차이점

피임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성지식 습득 과정을 살펴볼 때, 남성은 직접 성경험을

하기 전에 간접경험을 통해 많은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란 프로그램의 유통은 불안전한 성 정보를 습득하게 됨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또한, 이른 나이에 음란물에 노출됨으로서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릇된 성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다. 또래와의 대화를 통한 간접경험은 남성 참여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a 등(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즉, 동료가 피임에 대해 강조하는 정도에 따라 피임실천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대 남성 참여자의 경우 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기 보다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획득한 성정보로 인해 피임이 빠진 성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은 뚜렷한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성경험을 하게 되고 그 후 비로소 관련 정보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임에 대한 지식과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노출되었다(정윤지, 2008). 이는 첫 성경험에서 임신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다수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피임지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송주은, 채현주, 2010; 최정현, 김정은, 신미아, 2010), 실제 인터뷰를 통해 여성의 피임지식정도를 살펴본 결과 참여자들은 피임에 대해서 매우 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정현 등(2010)의 연구에서 대학생이 피임하지 않은 이유로 대상자의 20%가 '피임방법을 몰라서' 라고 응답한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인터뷰 결과 여성 참여자들은 혼전 성관계로 인해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경험 후 본인의 경험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정의 근원은 사회에서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공미혜, 2004). 즉, 여자다움이란 정숙함으로 통용된다. 따라서 정숙하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을 여성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의 피임협상과정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성관계 상황 전에 피임유무에 대해서 여성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남성은 콘돔사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이혜경, 2010; 정윤지, 2008; 허태균, 조자의, 2007), 본 연구의 남성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피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스스로 피임방법을 공부하였고, 피임도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성관계 결렬도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질적 연구를 통해 밝힌 남성의 피임실천 이유는 상대 여성의 임신으로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자신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동기로서 피임을 실천하고 있었다. 남성이 피임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피임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성관계 후 임신 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해결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남성은 임신예방에 초점을 두지만, 여성은 임신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피임방법을 남성과 함께 모색하기 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처하는 수동적인 모습이 관찰되었다. 피임약을 몰래 먹기도 하였으며, 피임하지 않고 성관계를 함으로서 생기는 임신에 대한 불안감을 감내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행동의 이면에는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이중적인 성의식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공미혜, 2004; 장수정, 2005). 여러 여성과 성경험이 있는 남성은 능력 있는 남성으로 인정받지만, 여성의 경우 이와 반대로 험프고 썩 여자로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피임에 대한 지식을 얻어가기란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피임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피임에 대한 태도에서도 남녀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몇 번의 성행위로 인해서 피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피임이 고착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남성은 임신이라는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있었다. 이는 허태균과 조자의(2007)의 연구에서 콘돔사용설득 전략으로 임신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피임하려 노력하였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기 보다는 남성에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였다. 즉, 상대 남성이 자신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피임해 주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가 뚜렷하였다.

결론적으로, 피임은 성관계에 참여하는 남녀의 공동의 의무이자 책임이다(조주연, 한승의, 송미승, 2006). 그러나 피임방법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견주어지는 잣대는 여전히 이중적이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참여를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이중적인 성규범이 존재하고 있었다. '착한여자되기' 콤플렉스를 가지고 남성이 원하는 대로 수용하고 따르는 모습은 과거의 여성과 다를 바 없었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의견조율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포함하는 성교육이 요청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주장 훈련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남성의 경우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하게 생각하

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서로 다른 성이 갖는 생리적인 변화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교육도 절실하겠다.

3. 성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성적 환상이 생기기 쉬운 구조이다(이민희, 최상진, 2005). 더불어 그런 환상을 풀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남성들은 돈을 주고 성을 사서라도 빨리 성경험을 하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성욕구가 당연히 생기거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전한 방법이 공교육에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교육을 개발하기 전 대상자의 관심이나 욕구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중학교 때 이미 성과 관련된 콘텐츠에 노출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성교육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 이보다 빠른 시기에 구체적인 성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내용 측면에서는 성뿐만 아니라 사랑, 결혼과 같은 일련의 과정들에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도록 교육해 나갈 필요가 있다.

피임실천을 지속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남녀 모두가 피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임하려는 의지가 명확할 때이다. 참여자들은 성관계의 상황에서 피임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로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므로 피임실천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피임에 대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았던 참여자는 피임실천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졌다. 박지현과 김태현(2005)의 연구에서는 커플간의 성에 관한 의사소통이 성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혔다. 그러므로 성과 관련된 주제를 더 이상 음성적으로 다루지 않고 소통의 환경을 형성해 준다면 성공적인 피임실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직접적으로 성지식을 전달하는 성교육이 아닐지라도 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이 오히려 피임실천을 지속시켰다.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의 근원이 가정의 분위기에서 비롯되거나 혹은 또래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가정에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다면 피임상황에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성과 관련하여 긍정적 신념이 강화될 것이다. 학교 성교육은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고 여성주의 강의나, 건강 관련 프로그램 등 담론을 형성하는 성교육이 피임실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윤지(2010)의 연구와 유사하며 매체

의 순기능을 활용하여 피임에 대한 내용을 영향력 있게 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혼남녀의 피임경험을 기술한 서술적 질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미혼남녀 총 15명이었다. 남성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 성경험에서 비록 피임실천을 하지 못했지만 성관계가 지속되면서 피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여성 참여자는 성과 피임에 대해서 여전히 남성에게 의존적이며 피임실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임신하거나 시켜본 참여자가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인이나 상대의 임신 경험은 앞으로의 피임실천에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해경(2010)의 연구를 통해 임신이나 임신중절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돔을 사용할 의지가 낮았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들 고위험군의 피임실천 지속여부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질적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양적 연구이며 이는 개인적인 피임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피임과정을 통제하고 있는 미혼남녀의 생각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둘째, 남성이 여성보다 피임실천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 다른 점인데 특히, 자기주장하기나 주체의식가지기 등 여성을 위한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있어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이 큼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스를 통한 민간 부분에서의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참여자의 성 가치관 형성에 대중매체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통해 매체의 긍정적인 기능을 활용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미혜(2004). *성과 성 정치학*. 서울: 한울 아카데미.
박지현, 김태현(2005). 대학생의 성 행동에 관한 연구: 부모와의 의사

- 소통 특성과 대학생의 성태도 및 성에 관한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1), 75-101.
- 백미숙, 강명구(2007). '순결한 가정'과 건전한 성윤리: 텔레비전 드라마 성표현 규제에 대한 문화 사적 접근.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21(1), 138-181.
- 손애리, 천성수(2005). 전국 대학생의 성의식, 첫 성경험 및 성행동에 대한 성차. *보건과 사회과학*, 18, 73-100.
- 송주은, 채현주(2010). 대학생의 성별 피임에 대한 지식정도와 교육구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6(4), 399-408.
- 이민희, 최상진(2005). 라깡적 관점에서 여성(남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성과 남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3), 269-292.
- 이선희, 한성현, 이먼선, 조희숙, 채유미, 유승현(2000). 미혼남녀의 성행태 및 성의식 관련 요인 분석.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7(2), 1-15.
- 이임순, 박은희, 이정재(2006). 한국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의식 실태 조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49(1), 157-167.
- 이혜경(2010). 남자대학생의 성 경험 유무에 따라 콘돔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6(2), 194-203.
- 장수정(2005). 여성의 몸과 주체를 둘러싼 정책적 담론의 형성. *아시아여성연구*, 44(2), 37-70.
- 정윤지(2008). 비혼 남녀의 콘돔사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성. *젠더와 사회*, 7(1), 183-218.
- 조주연, 한승의, 송미승(2006). 여대생들의 피임행위에 대한 주관성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4), 338-347.
- 최명숙(2004).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 성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4), 318-330.
- 최정현, 김경은, 신미아(2010). 대학생의 피임지식 및 피임태도와 피임사용에 관한 연구: 대학생의 성별, 연령집단, 거주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9(3), 511-522.
- 허태균, 조자의(2007). 한국대학생들의 콘돔협상전략 탐색: 콘돔연구에서 협응적 관점의 제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1), 43-61.
- 허태균, 한민, 김연석(2004). 성행위시 위험감수 의사결정에서 남녀차이: 콘돔사용과 계획된 행동 이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69-87.
- 황신우(2011). 미혼남녀의 피임실천행위와 관련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1), 77-87.
- Bleakley, A., Hennessy, M., Fishbein, M., & Jordan, A. (2011). Using the integrative model to explain how exposure to sexual media content influences adolescent sexual behavior. *Health Education & Behavior*, 38(5), 530-540.
- Boer, H., & Mashamba, M. T. (2007). Gender power imbalance and differential psychosocial correlates of intended condom use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from Venda, South Africa.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2(1), 51-63.
- Cha, E. S., Kim, K. H., & Patrick, T. E. (2007). Predictors of intention to practice safer sex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7(4), 641-651.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 Downe-Wamboldt, B. (1992). Content analysis: Method, applications, and issue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3, 313-321.
- Thorburn, S. (2007). Attitude toward contraceptive methods among African American men and wome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omens Health Issues*, 17(1), 29-36.
- Wang, R. H., Wang, H. H., Cheng, C. P., Hsu, H. Y., & Lin, S. Y. (2007). Testing a model of contraception use behavior among sexually active female adolescents in Taiwan. *Research in Nursing & Health*, 30, 628-640.